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평화운동 협력세션 I-5 :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나리나 평화공공외교협력단

'DMZ FORUM 2021: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는 5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기획되었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1-5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21일 오후 3시 10분부터 8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세션은 한반도 종전 평화를 왜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세션은 발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영아 활동가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마리 라우어 프아리 글로벌 애드보커시 팀장은 한반도 평화구축 위한 GPPAC의 글로벌활동과 도전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는 평화구축과정 시민사회의 역할 중요성, 평화구축 과정에서 GPPAC이 개입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또한 한반도/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민간 대화인 올란바토르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란바토르 프로세스는 6자회담 국가 모두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다음으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은 한반도 평화선언,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향한 시민행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평화프로세스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야기해 온 몇몇 근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제안하였다. 그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하며 평화를 원하는 한반도 주민들의 열망이 국제사회에 전해지고, 세계 시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국제정치가 그 목소리에 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많은 이들이 코리아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영아 활동가는 사정으로 불참한 국제평화국 리사 클라크 공동의장을 대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종전 평화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는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해야 하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은 한반도 종전을 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

다.

영국 핵군축 캠페인 캐롤 터너 부의장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영국의 사례에 빗대어 강조하였으며 경험을 통해 캠페인이 생각해야 할 지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임재환 회원과 오스카 에스코바 회원은 코리아피스 나우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국경을 뛰어넘는 공감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평화운동 협력세션 I-5 :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신은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5월 21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그중에서 평화운동 협력 세션 I-5는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주제로 80분간 진행되었다. 본 세션은 한반도 종전 평화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안건을 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함께 행동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기획되었다. 이영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활동가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리사 클라크 국제평화국 IPB 공동의장 및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마리 라우어 프아리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글로벌 애드보커시 팀장, 이태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캐롤 터너 영국 핵군축캠페인 부의장,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회원이자 제너레이션 피스 회원인 임재환, 오스카 에스코바가 토론자로 참석해 차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마리 라우어 프아리 GPPAC 글로벌 애드보커시 팀장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GPPAC의 글로벌 활동과 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GPPAC의 배경과 역할에 설명하였다. 2003년에 설립된 GPPAC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지역 평화구축 단체들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갈등 예방과 평화구축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200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GPPAC은 시민사회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사회의 행위자들과 기관들을 연결하고 갈등 해결 방식을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 예방과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은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다. 그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GPPAC의 지역적 접근법으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UBP) 를 소개하고 이는 위기뿐 아니라 안정의 시기에도 역내 모든 국가 (남북한 및 6자회담 당사국들을 모두 포함)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이고 일관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몽골 정부의 지원으로 트랙 1 대화와 관계 구축, 시민사회가 서로의 관점을 교환하고 지역단체 설립에 용이한 환경 조성, 비핵지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 독려, 역내 상호 간 학습 및 교육 워크숍 기회 제공을 통해 역내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만의 성과들을 설파하였다.

이태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은 '한반도 평화선언 -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향한 시민 행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평화 프로세스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비로 대표되는 실질적인 상호위협 감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와 모순되는 미국의 핵 억지력 의존성,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위협 행동 자제 및 민생과 직결된 제대 해제를 통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 진정한 가치 외교 혹은 인권 외교의 필요성 등 네 가지 근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힐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려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시민평화 행동을 진행 중이며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해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와 의회 지지 서언을 모아내는 것이 본 캠페인의 주된 행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주요 당사국 및 한반도 주변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이들이 코리아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연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을 끝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토론에서는 영국 핵군축캠페인 (CND) 부의장인 캐롤 터너가 영국의 핵군축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 다각적 위협의 감소, 비핵화, 새로운 관계 전환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역내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제 여론과 시민사회를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그는 전통적인 안보는 군사 보호에 초점을 두지만 최대 이익은 인간 안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목표에 공감을 표시하며 CND가 이와 같은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두 토론자인 임재환과 오스카 에스코바는 모두 제너레이션 피스와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한반도 종전 평화 운동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과 경험을 공유했다. 임재환 토론자는 과거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고 세계 시민권을 지지하는 단체 Humans of North Korea (HNK) 의 공동 창립자 및 대표로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로비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그는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더욱 더 오픈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스카 에스코바 발표자는 한반도 종전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한 동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공부한 미국 시민으로서 한반도가 처해있는 딜레마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Korea peace partnership을 구축해나가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인식을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끝으로 이영아 좌장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있어서 국경을 넘는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휴전에서 평화로 가는 길에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해주기를 당부했다.